

# 도쿄올림픽 2주 남았는데 '관중' 들어갈 수 있을까?

1만명 vs 5000명 vs 무관중 조정 계속...초점은 총선 '역풍'



지난달 29일 도쿄올림픽 경기가 열린 일본 도쿄 국립경기장의 앞으로 차들이 지나고 있다. 도쿄올림픽은 오는 23일 개막한다.

결론은 8일에 난다. 이달 23일 개막하는 도쿄올림픽까지는 약 2주가 남았다. 그런데 관중을 최대 1만 명 수용하겠다고 했던 도쿄올림픽 방침이 흔들리고 있다. 수용 관중 수 축소 혹은 무관중까지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도쿄(東京)도에 적용된 '만연방지 등 중점조치(중점조치)' 연장이 사실상 불가피해지면서 일본 정부 등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일본 정부는 연장 여부를 8일에 판단한다. 이후 정부는 도쿄도,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 등과 5차 협에서 관중 수용 여부를 최종 결정할 전망이다.

## 1만명 vs 5000명 vs 무관중

앞서 지난달 21일 일본 정부는 조직위, IOC 등과의 5차 회의에서 경기장 수용 정원의 50% 안에서 최대 1만 명까지 관중을 수용하겠다고 최종 결정했다. 유효한 티켓 중 363만 장 중 91만 장이 무료표로 증발하게 됐다. 그럼에도 무관중 방침을 결정하며 270만 장의 티켓 판매를 시도했다. 현재 도쿄도 등 10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는 중점조치가 오는 11일까지 적용된 상황이다. 산케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8일 도쿄도, 사이타마(埼玉)현, 지바(千葉)현, 가나가와(神奈川)현 등 수도권 4개 지역의 중점조치를 연장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다. 코로나19 특별조치법에 따라 중점조치 아래서 경기는 경기장 수용 정원 50%, 5000명 이하 관중 수로만 치를 수 있다. 물론 도쿄올림픽도 이 규정을 따라야 한다. 최대 5000명만 수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7일 산케이 신문은 조직위 내에서 이러한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최대한 관중을 수용하고 완전 무관중은 피하려는 모습이다. 단 개막식, 폐막식 등 경기 시간이 오후 9시를 넘기는 경기는 개최지 지방자치단체 지사가 요구하면 무관중을 실시하는 방안을 조정 중이다. 이렇게 어떻게든 관중을 수용하려는 주최 측의 배후에는 경제적인 타격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스폰서, 티켓 등 피해를 최소화하려 노력하는 것이다. 때문에 관중 확보와 스폰서에 대한 배려 정책을 선택했다가 여론에 의해 계속 좌절되는 식의 일을 반복하고 있다. 지난날 말에는 조직위가 경기장에서 주류 판매를 허용하겠다는 보도가 나왔다가 큰 논란이 됐다. 스폰서 가운데 대형 주류 판매 기업

전에서 지자체에 8-9월 화이자 공급 계획을 설명했다. 2주마다 1170만회분을 지자체에 전달하겠다고 있는데, 하지만 아사히 신문은 "공급량은 전월부터 크게 속도를 떨어트린 7월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 경기장서는 감염 위험 '0에 가깝다'...문제는 경기장 밖

백신을 접종하면 도쿄올림픽 유관중 개최는 감염 확산과 관련이 없는 것일까. 7일 마이니치 신문, 니혼게이자이 신문(닛케이)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교육부에 해당하는 문부과학성은 일본의 슈퍼컴퓨터 '후가쿠'(富岳)로 국립경기장이 관중 1만명을 수용했을 경우를 가정할 시뮬레이션 결과를 발표했다. 시뮬레이션은 관중 1만 명 가운데 10명의 코로나19 감염자가 있을 경우를 가정했다. 좌석 간 1:1 거리 두기, 모든 관중의 마스크 착용 등 대책 여부에 따라 4가지로 나누어 시뮬레이션 했다. 거리두기 없이 관중이 밀집해 있는 경우 바람이 앞에서 불어 비발이 뒤 쪽으로 간 경우 신규 감염자 수는 4.7명이었다. 뒤에서 바람이 불었을 때를 가정하면 0.08명의 신규 감염자가 발생한다는 계산이 나왔다. 앞과 뒤, 좌우 좌석을 모두 비워 좌석 간 거리두기를 했을 경우 바람이 앞에서 불면 0.23명, 뒤에서 불면 '0에 가깝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번 시뮬레이션은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문부과학성의 지시에 따라 후가쿠를 개발한 일본 국립이화학연구소가 실시했다. 이날 하기우다 문부상은 각의(국무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해당 시뮬레이션 결과와 관련 "마스크를 하고 간격을 뒤 착석하면(올림픽 시 국립경기장에서의 감염 위험은) 제로(0)에 가깝다"고 밝혔다. 그는 "마스크 착용 등 통제 조건이 갖춰지면 감염 확산은 억제할 수 있다고 과학적으로도 증명됐다.(도쿄올림픽) 대회가 안전·안심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참고로 활용돼 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가 코로나19 전문가들은 물론 여론으로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특히 경기장 내부 외에 인파가 모이는 경기장 앞과 음식점 등에서의 감염은 후가쿠 시뮬레이션에서 배제됐다. NHK에 따르면 7일 오미 이사장은 중의원 후생노동위원회 폐회 중 심사에 참석해 거듭 올림픽을 계기로 감염이 확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7-9월에 걸쳐서는 일본 코로나 대책에 가장 중요한 시기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며 "지금부터는 여름방학, 오봉(お盆·추석)에 해당하는 일본 명절, 올림픽·패럴림픽이 있다. 수도권에서 감염이 확산하는 가운데 이것이 다른 지역으로 감염을 확산시킬지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올림픽 관중 수용에 대해 "우리(코로나19 전문가)들은 전부터 무관중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려왔다. 대회 관계자 일부를 수용할 필요도 있겠으나 생각하지만, 되도록 최소한으로 하는 일이 모순된 메시지를 내지 않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호소했다.

뉴스스

# 독일 1부 마인츠행 이재성...서른에 이른 빅리그 꿈

분데스리가 대표적 '친한파' 구단 마인츠 이적 눈앞



독일 무대에서 뛰어난 축구대표팀 공격수 이재성(29)이 유럽 진출 3년 만에 빅리그 꿈을 이뤘다. 축구계에 따르면 이재성은 독일 1부리그인 분데스리가 마인츠 이적을 눈앞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 기간은 3년으로 공식 발표만 남겨 둔 상황이다. 지난달 2022 카타르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예선에 참가하기 위해 귀국한 이재성은 국내에서 머물며 마인츠와 최종 계약을 사인했다. 독일 축구전문지 키커도 6일(현지시간) "이재성이 마인츠로 간다"면서 "호펜하임과 협상을 벌였지만, 마인츠 유니폼을 입을 것"이라고 보도했

다. 2018년 프로축구 K리그 전북 현대를 떠나 분데스리가 2부 홀슈타인 킬로 이적한 이재성은 3시즌 동안 공식전 104경기에 출전해 23골을 넣었다. 핵심 공격수로 자리 잡은 그는 지난 시즌 팀을 승격 플레이오프까지 올려놨으나, 끝내 1부 승격에는 실패했다. 결국 지난 6월30일을 끝으로 킬과 계약이 만료된 이재성은 새로운 도전을 결심했고, 다수의 빅리그 팀과 협상 끝에 마인츠 유니폼을 입게 됐다. 이재성이 독일 2부에서 보낸 3년이란 시간을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

간이다. 그 사이 대표팀 동갑내기인 손흥민(토트넘)은 세계 최고 무대인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에서 월드클래스 공격수로 성장했고, 황의조(보르도)도 프랑스 무대에서 존재감을 뽐냈다. 하지만 이재성은 서두르지 않았다. 킬에서 뛰는 기간 몇 차례 이적 제의를 받았지만, 선볼리 움직이지 않았다.

이재성은 지난달 대표팀 소집 후 인터뷰에서 "(지난 3년은) 제 꿈을 이뤄가는 첫 단계였고, 저를 유럽에 알릴 기회였다"면서 "EPL과 분데스리가를 선호한다. 그곳이 나의 꿈이다. 소집 후 거취가 결정 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애초 이재성은 과거 이청용(울산)이 뛰었던 크리스탈 팰리스와도 접촉했으나, 까다로운 워크퍼밋(취업비자) 등 여러 조건으로 이적이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마인츠는 국내 축구 팬들에게 익숙한 구단이다. 차두리부터 구자철, 박주호가 몸담았고, 최근까지 지동원이 뛰었다. 대표적인 '친한파' 구단으로 꼽힌다.

분데스리가에선 최근 5시즌 동안 꾸준히 10위권 밖을 유지한 중위권 팀으로 평가된다. 2008-2009시즌 승격 후 12시즌 동안 1부리그에서 살아남았다. 지난 시즌에도 리그 12위를 차지했다.

# '배구여제' 김연경의 마지막 목표는 올림픽 메달

2012런던올림픽서 아쉽게 4위 머물렀지만 MVP차지

'배구 여제' 김연경(33·상하이)은 국내를 넘어 세계 여자배구계를 대표하는 스타다. 그런 그도 이루지 못한 꿈이 있다. 바로 올림픽 메달이다. 10대 시절부터 두각을 나타낸 김연경은 2000년 중반부터 현재까지 한국 여자배구를 이끌고 있다. 이중에는 두 차례 올림픽도 있었다. 김연경이 처음 올림픽 무대를 밟은 대회는 2012년 런던이다. 당시 한국 대표팀은 36년 만에 올림픽 4강에 진출했다. 김연경을 중심으로 뚝뚝 뚝뚝 한국은 준결승까지 상승장구했다. 1976년 몬트리올 대회(동메달) 이후 36년 만의 메달이 손에 잡히는 듯 했다. 하지만 한국의 질주는 거기까지였다. 준결승에서 미국에 패하고, 동메달 결정전에서 일본에 밀려 아쉽게 4위에 머물렀다. 그러나 김연경의 존재감은 대단했다. 4위팀에서 이례적으로 최우수선수(MVP)를 차지했다. 이 대회를 기점으로 김연경은 확실한 월드스타로 발돋움했다. 4년 뒤인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도 8강행을 이끌었지만

메달과는 인연이 없었다. 이번 도쿄 대회를 두고 김연경은 수차례 "마지막 올림픽"이라고 이야기했다. 서른을 넘은 그의 나이를 고려했을 때, 다음 대회 출전은 사실상 쉽지 않다. 마지막 기회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만큼 "메달을 따고 마무리를 좋게 하고 싶다"는 그의 각오는 더 간절하다. 올림픽을 향한 열망은 일찌감치 드러났다. 김연경은 지난해 1월 아시아 예선에서 맹활약하며 도쿄행 티켓 수확에 앞장섰다. 그가 복근 부상으로 진통 주사까지 맞으며 투혼을 발휘한 결과였다. 현재 김연경은 인천선수촌에서 동료들과 함께 마지막이 될 올림픽 준비에 한창이다. 한국은 개최국 일본, 세르비아, 브라질, 도미니카공화국, 케냐와 함께 A조에 편성됐다. 7월25일 브라질과 첫 예선 경기를 치르고 27일 케냐, 29일 도미니카, 31일 일본, 8월2일 세르비아와 차례로 맞붙는다. 전력상 메달권 도전이 쉬운 과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팬들은 김연경이 있기에 기대를 접지 않고 있다.



◇김연경 프로필

▲생년월일 : 1988년 2월 26일 ▲신장 : 192cm ▲몸무게 : 73kg ▲학력 : 원곡중-한일전산여고 ▲소속팀 : 상하이 브라이트 유베스트 ▲포지션 : 레프트 ▲주요이력 : 2012 런던올림픽 여자배구 MVP, 2005-2006 V-리그 정규리그 챔피언결정전 MVP, 신인왕 2020-2021 V-리그 정규리그 MVP

김연경은 "배구선수로서 내가 크게 여기는 걸 생각했을 때 올림픽 메달이라고 생각했다"며 "마지막 목표인 올림픽 메달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뉴스스

# 전남 드래곤즈, 악천후 속 홈경기 경남FC와 0-0 무승부

전남드래곤즈가 최근 광양축구전용구장에서 폭우 속 열린 하나원큐 K리그2 2021 19R 경남FC와의 홈경기에서 0-0으로 무승부를 거뒀다. 경기 당일 오전부터 폭우가 쏟아졌던 광양축구전용구장은 경기 직전 비가 소강 상태로 접어드는 듯 했다. 그러나 경기가 시작되자 다시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고, 경기 내내 폭우가 내려 양 팀 모두 100%의 경기력을 보여주지 못했다. 경기 초반은 경남이 공격적으로 라인을 올리며 주도권을 잡았고, 전남은 팀의 장점인 탄탄한 수비로 경남의 공격을 막아냈다. 폭우가 내리는 가운데 치열한 공방전을 치른 전남과 경남은 슈팅 숫자 13개와 17개로 도합 30개의 슈팅을



기록했으나, 그 어느 팀의 골문도 열리지 않았고 경기는 0-0으로 종료되었다. 홈에서 경남FC와 비기며 1승 2무

로 3경기 무패 기록을 이어나간 전남은 오는 11일 일요일 저녁 7시 20R 부산아이파크 원정경기를 떠난다. 동부취재본부김승호기자